

“집행부와 함께 광양살림 챙기겠다”



이두현이
만남 사람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

광양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희 의장(60)을 만났다. 온화한 모습에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에선 어느 정치인들 같은 결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양시의 살림살이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등 주저함이 없었다. 김 의장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와 관계,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가감 없는 얘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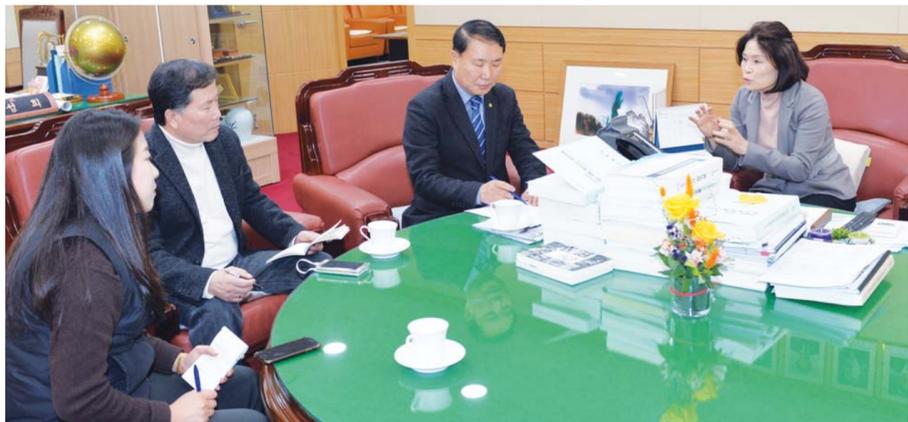
▲광양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란 별칭을 얻으셨는데.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지난 제6대 비례대표를 거쳐 중대·골약 선거구에서 제7대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 제8대 의회에서 의장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모두 성원 해주신 시민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행정이나 정치가 가장 살림살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운택하고 밝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여성들의 자부감과 섬세함으로 지역을 챙긴다면 더욱더 안정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역할은 협력과 견제다. 의장으로써 의회운영 방향은.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 성공의 쌍두마차다. 한쪽만이 독주해서는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집행부의 자세도 중요 하지만 의회라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견제만 이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이 최근 이두현 본지 동부권취재본부장을 만나 광양시 핵심현안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의원 자치역량 강화·상임위중심 의회 운영 최선 어린이 테마파크·광양 알루미늄 문제 대안 제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수정해 시민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인데.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치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의원들의 실무기법 연찬과 현장 비교견학 등을 통해 내실 있고 실력 있는 의원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의회내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을 때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의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으로 하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 찬반보

다는 함의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또 대안은?

-광양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우선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문제다. 예산만 해도 1,5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대 사업인데다 광양시의 미래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아직 부지 확보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집행부도 내실있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으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 차원에서 도 내실 있는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용인, 흥천, 대구를 벤치마킹 한바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대구 ‘이월드’였다. 이용 대상을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해

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광양시가 눈여겨 볼 대목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비교분석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세풍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광양알루미늄 문제이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중심이 돼 중국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의회차원에서 유사 업종이 있는 다른 지역 산단 등을 현장조사하고 자료를 비교 검토 하겠다. 정밀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 반대에 나서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된다고 본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신중하고 차분히 접근해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다.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따끔한 채찍도 마다하지 않겠다. 집행부와 양측으로 광양발전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 드린다.

/정리=동부취재본부 정경화 기자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무면허 시공업체 계약

감사원, 업체 적정처리·관련자 주의 요구

순천시가 추진중인 봉화산 출렁다리 시공업체가 무면허·무등록 업체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순천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순천시가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설치 공사계약을 무면허·무등록 업체와 11억9,000만원에 체결했다”며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순천시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사업비 24억5,000만원)를 추진했으나, 작년 12월부터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교량 등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 전문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철강재설치공사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업체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무등록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2호항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가 출렁다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주요자인 케이블을 분리발주해 제작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했으며, 인근주민 70% 이상이 반대의견서를 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시민의견을 수렴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납품 제작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설치 부분은 안 되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엠블호텔 여수 호남권 최초 ‘5성’ 현판

국제 최고 등급 획득

엠블호텔 여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호텔 별 등급제 심사에서 국제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호남권 최초로 특1급 간판을 내리고 오는 15일 새로운 5성 현판을 내건다. 별 등급제 심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최고 등급인 5성은 현장 평가(700점)와 압행 평가(300점) 등 총 1,000점 배점 중 900점 이상을 획득한 호텔에게만 부여된다.

엠블호텔 여수는 현장 평가와 압행 평가를 900점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 5성 호텔 현판을 달게 됐다.

박종균 엠블호텔 여수 총지배인은 “엠블호텔 여수의 5성 선정은 단순한 등급 획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지역 호텔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면 전문가와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5성호텔에 걸맞는 품격 있는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이라 밝혔다.

한편, 엠블호텔 여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 50% 특별 할인이 적용된 ‘5성 기념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뷔페 2인 ▲5성 기념 타월 등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엠블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요금은 주중 슈퍼리어 객실 기준 22만3,000원이며, 요일 및 객실 타입에 따라 변동된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맹탕’

웅천지구 특혜의혹 해소 한계 드러내

여수시의회가 웅천택지개발 추진과 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국 특혜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웅천택지개발 추진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공영개발과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핵심 서

류는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특혜 의혹해소에 역부족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통해 충분한 서류 검토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해소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복지위는 웅천지구 택지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수

차례 계획변경시 의회나 주민의견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 실시계획 및 변경이 여수 시장 권한이고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의회의견청취나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선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곡성경찰 전남경찰 치안현장 간담회

곡성경찰서는 최근 청내 동아마루에서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 양동제 곡성시장, 각 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는 주제로 치안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치안수요가 많은 육과파출소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국가중요시설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방문, 현안 업무청취,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NH농협보성군지부 입육권 기탁

NH농협보성군지부는 최근 보성군을 방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울포해수축센터 입육권 3,500장(1,0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부된 입육권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약 700세대에 배부 될 예정이다. 안성열 지부장은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여수교육지원청 공직자 보안교육

전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청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18년 공직자안보교육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놓이기 쉬운 보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안감사 지적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보안담당자들의 큰 공평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안내하고,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및 동영상을 시청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연향파출소, 자율방범대 감사패

순천 연향파출소는 최근 한 해 동안 연향파출소 공동체 협력치안 활동에 노력해 준 자율방범대장 및 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연향파출소장과 직원, 자율방범대원 및 가족,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향 자율방범대원들은 연향파출소와 동행순찰을 통해 범죄예방활동 등 안전한 연향동 만들기에 노력해 왔으며 예방치안, 참여치안 등 동반자 역할을 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현 기자